– 세계 10위 권 창업환경 조성
– 재창업 자금 및 연대보증제도 보완으로 기업인 재기 지원

정운찬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승모 회장을 비롯한 벤처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벤처기업인들의 가장 큰 축제인 '벤처코리아 2009'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해온 벤처기업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벤처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오늘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와 가족 여러분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벤처기업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해마다 크게 성장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매출액 100조 원을 돌파하여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1천 클럽에 들어선 업체도 200개를 넘습니다. 매출 1조 원 벤처기업까지 탄생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고용은 감소하고 있으나 벤처기업의 고용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벤처기업이 서민경제에 가장 중요한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벤처기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벤처기업인 여러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입니다. 케인즈가 말한 야성적 충동, 다시 말해 적극적인 투자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벤처기업인 여러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 그리고 글로벌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창업절차 간소화와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범국가적으로 기업가정신 확산운동을 전개하고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세계 10위 권의 창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창업을 하고, 세계시장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를 목표로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는 글로벌 벤처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이 녹색성장 시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1조 원인 모태펀드 규모를 2012년까지 2조 원으로 확대하여 벤처투자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입니다. 재창업자금 지원과 연대보증제도 개선, CEO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 등을 통하여 실패한 기업인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벤처기업인 여러분도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벤처정신으로 우리 경제의 더 큰 미래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인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이 한국 경제의 성공입니다. 정부와 벤처기업이 함께 손잡고 노력한다면 '벤처 르네상스'는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가는 '선도 벤처기업'들의 적극적인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은 적극적인 사회봉사와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업이 많은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앞서가는 '선도 벤처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때 우리 국민의 더 큰 신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벤처강국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이번 행사가 벤처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벤처만의 기업가정신으로 2만 개 벤처기업 달성 임박
- 진정한 벤처 르네상스 위한 벤처기업과 정부 양쪽의 지원이 필요

서승모 벤처기업협회 회장

먼저 바쁘신 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벤처인들을 격려해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정운찬 국무총리님, 정장선 지식위원회 의장님, 김태환 지식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홍석우 중소기업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벤처산업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벤처기업인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올 한 해는 기업인들에게 고난과 도전의 해였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수출과 내수경기침체라는 내우외환이 한꺼번에 우리 기업에 몰아 닥쳤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우리 벤처만의 기업가정신을 떨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벤처창업의 붐이 거셌고, 중견벤처의 활약도 눈부셨습니다.

작년 말 1만 5천 개였던 벤처기업 수는 이제 2만 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출 천억 벤처도 152개에서 202개로 훌쩍 늘어났습니다. 자랑스러운 최초 1조 원 매출 기업도 탄생했습니다. 기술창업의 근간인 교수 및 연구원 창업도 상반기에만 367명을 기록해, 과거 7년간 평균치인 100명의 세 배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벤처기업은 대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을 압도하는 높은 고용증가율로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계적 화두인 녹색산업분야에서 활약하는 그린벤처기업의 비중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벤처는 이렇듯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자랑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빠른 경기회복을 이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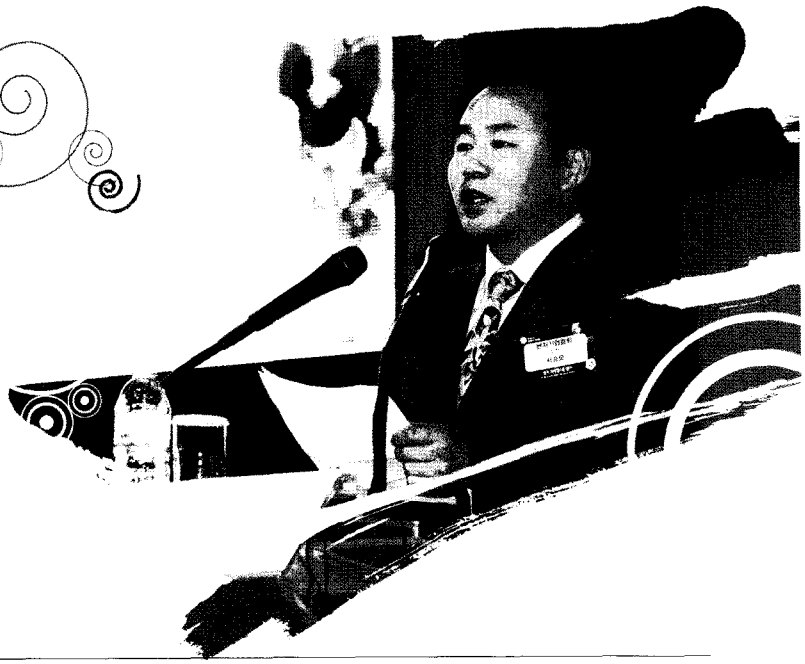
내빈 여러분!

올해 벤처코리아의 슬로건은 '벤처 르네상스를 열다' 입니다. 아시겠지만 르네상스의 핵심은 문화의 부흥입니다. 르네상스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창조와 혁신의 문화가 꽃을 피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경제에 벤처가 르네상스를 새로이 열고자 합니다. 벤처가 직접 뛰어 우리가 국가의 신성장동력임을 증명코자 합니다.

이제까지처럼 R&D와 경영혁신을 최우선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벤처의 특기인 기술창업으로 창업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광활한 글로벌 시장 구석구석 메이드인 코리아를 심겠습니다. 벤처기업인들이 직접 나서 미래 국가경제의 견인차인 청년층에게 기업가정신을 확산하겠습니다. 벤처의 개성을 살려 우리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진정한 벤처 르네상스의 도래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서양사에서 르네상스는 메디치가 같은 훌륭한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의 과학, 예술을 바꾼 천재들이 활약했고, 찬란한 문화유산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벤처를 위해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관련 정부부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지속적인 벤처산업 활성화와 건전한 벤처생태계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재차 요청드립니다. 벤처 르네상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벤처기업인들께 제안드립니다.

벤처강국을 만드는 주인공은 바로 우리입니다. 창업을 결심하던 그때의 초심을 잊지말고 도전을 계속합시다. 우리 벤처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라는 것을 자각하고 첨단 혁신기술을 무기로 세계로 뻗어나갑시다. 양적성장만이 아닌 내실을 기한 성장으로 벤처의 건전화에 앞장섭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벤처만의 장기를 살려 벤처 르네상스를 만들어 냅시다!

감사합니다.